

## 자기논의 들보

시집간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한국에서 1년간을 지낸 작년 이었다. 태어나서 한국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가 약혼한후 약혼자를 방문하러 1년에 2차례 다녀온것이 전부인 딸은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다. 모든것이 신기하고 예쁘고 특히 창의력이 있는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보면 그만 훌쩍 반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딸이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있는 1년은 딸을 꿈에 부풀게 하기에 충분했다.

1년동안 딱히 할만한 마땅한것이 없는지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딸은 한국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똑똑한 초등학생들을 신기해했고 그 아이들의 깜직한 말투와 생각에 놀라””엄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런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줄아는지 모르겠어”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내게 전화로 자지잔 소식들을 그렇게 전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것같이 모든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는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 었다. 전화를 건 딸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흥분되있었다. 이유인즉은 주말이라 남편과 쇼핑을 하고 저녁식사후에 영화를 보려고 코엑스빌딩안의 영화관에서 줄을 서있었을때 생긴일때문이었다. 유난히 키가크고 서구적으로 생긴 딸은 티셔츠에 청바지로 소탈하게 입고 나가도 미국에서 왔느냐고 단박에 알아차린다는데 체격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것이다. 그날은 남편과의 외출이라 좀신경을 쓰고 어떤백을 들을까 망설이다 여름이라 동네가까운 곳에서 산 하얀 심플한 백을 골라 들었다. 이곳 가격으로 20,30 불정도의 가격인데 눈에 뜨이게 디자인이 이뻐 산것이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당히 고가격의 디자이너 인 “지미츄”의 복사제품인것이었다. 그러나 딸은 그런가보다 하며 개의치않고 가끔 드는 그런백이었다. 그런데 발단은 바로 그 백이었다. 주말이라 영화관 티켓을 구입하는 줄이 길었다. 그래서 남편과 담소를 하며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 선 딸또래의 젊은 여성 세명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것이다. 딸아이와 사위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이들은 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겠거니 생각했는지 아니며 작은 소리로 소근거리면 못듣겠거니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온거같지”애 저여자 옷입은거 어떠니”키 되게 크다 “세련됐다 애” 까지는 좋았는데 “야 저 가방 진짜니?””저게 얼마짜린데 진짜를 들어”아닌데 진짜같은데 “하며 서로 “니가 가까이 가서 한번 봐”하며 세사람이 계속 딸아이를 아래위로 옆으로 기웃거리며 소근거리다 급기야는 툭툭 치게 되면서까지 딸아이의 가방을 탐색하게 까지 되니까 결국 못참게된 딸은 획 돌아서며 다짜고짜 한국말로 ”여보세요 자기 눈하고 코, 자신의 얼굴들이 가짜인 주제에 남의 가방이 진짜면 어떻게 가짜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냅다 쏘아붙여버리고 말했다. 이일을 당한 세 아가씨들은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한국말을 못알아들을줄 알았다가 기가막힌 한국말에 놀라고, 말의 조리와 내용이 일격타를 가하기에 너무나 충분했고 자신들의 상커플과 높은코가 대중앞에 여지없이 망신당하게 된것에 아연실색인 그들은 눈을 어찌돌려야 할지 몰라 찢찢매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말아버린것이다. 그 옆에서 아내의 당참에 놀라 얼굴이 달아오른 신랑은 놀란 동그란눈으로 어안이 빙빙했단다. 그러나 내심 아내가 자랑스러웠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기가 막혔다. 평상시에도 대쪽같이 곧은 성격과 거침없는 표현 때문에 시집살이도 많이 당한 엄마라 놀랄것은 없었지만 어찌면 그렇게 딱부러진 비유를 기가막히게 뽑아내서 상대의 오금을 저리게 할수있을까? 내게는 없는 부분인것이다. 솔직한 내속내는 속이 고소하기도 하고 딸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딸은 그덕분에 이틀후 난데없이 남편에게 끌려가 명품가방스토어에 강제로 2 시간을 기분좋은 강금을 당해 할수없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으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딸의 전화를 끊고도 내입은 다물었는데 마치 입이 벌려져있는것 같은것은 아마 나도 많이 놀랐기 때문이리라.